



봄·여름 합본호

2012. 06

NO.16

동물보호지

높아게 로 나누는 상 준로

Special

돌고래 수족관의 잔인한 진실

야생에서 적응이 힘들니
방생하면 안 된다?

Interview

돌고래 보호 활동가

릭 오배리

현장에서

송아지까지 기필코,
꼭 먹어야 하나?

Animal & Culture

고래를 구하려는 특별한 의지

노석미의 자연이 빛은 에세이



다들요신 후 이곳에서 친구와 나눠 보면 더 좋습니다

CONTENTS

03 여는 글

돌고래소의 교육적 효과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04 Special

돌고래 수족관의 잔인한 진실

10 Interview

돌고래 보호 활동가 릭 오배리

12 현장에서

송아지까지 기필코, 꼭 먹어야 하나?

14 반려동물 문화캠페인

더 나은 동물보호법을 위해

16 Animal & Culture

고래를 구하려는 특별한 의지

18 묘생역전

멍멍이 형들을 사로잡은 애교 만발 하얀 천사 꼬맹이

20 동물관련 단신

영국 동물 보호소의 자원봉사자 운영 프로그램

21 입양해주세요

노견들에게도 애정 어린 가족이 필요합니다

22 활동소식

2~3월 동물자유연대 활동소식

24 노석미의 자연이 빛은 에세이

25 간단하고 재미있는 동물 상식 십자말

26 행당포토뉴스

27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28 올드독 동물기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2012 봄·여름 합본호

발행처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2년 6월 1일 편집·진행 조은희 교정 조선경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디자인·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인쇄 동방기획

www.animals.or.kr

함께
나누는
삶

동물보호지

* 이번 16호는 돌고래 특집 기사를 알차게 실기 위하여 부록이 봄,여름 합본호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는 글

돌고래쇼의 교육적 효과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영국의 야생동물보호단체 본프라이에서는 터키에서 돌고래 톰과 미샤를 바다로 귀환시킨 동영상은 지난 5월 9일에 공개했습니다. 톰과 미샤는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처럼 바다에서 불잡혀 약 4년간을 좁은 공간에서 쇼에 이용되는 동안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등에 시달렸던 돌고래들입니다. 심신이 파멸해진 이 돌고래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야생적응훈련을 시키는 데에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바다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들의 야생적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본프라이는 “톰과 미샤가 48시간 동안 고향 바다 쪽으로 100마일 이상을 헤엄쳐 갔습니다. 너무 빨리 헤엄쳐서 이들을 추적하는 배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17×12m의 비좁은 수족관에서 4년을 갇혀 살다가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확보하며 싱싱한 물고기를 먹이로 삼을 수 있게 된 톰과 미샤,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들을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 자유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마음 저릿하게 절감하게 됩니다. 한량없는 자유가 넘실대는 바다로 돌아간 톰과 미샤의 사건이 시사하는 교육적 효과는 쇼장에서 인위적으로 의인화시킨 동물을 바라보며 느끼게 되는 오락적 유희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동물쇼 공연업체 퍼시픽랜드에 있는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한다는 선고를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9~2010년에 제주 앞바다에서 살고 있는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를 포획 후, 불법 감금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으로, 제주지법의 선고는 우리나라의 동물권 신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돌고래쇼가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역사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돌고래쇼에 관한 인간의 일방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확보할 권리가 있는 동물을 비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쇼를 시키며 생태교육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체를 오락거리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통해, 어린이아들은 호기심 충족이라는 유희 말고 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교육적 효과는 커녕, ‘강자는 약자를 제멋대로 지배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실을 은연중에 배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됩니다.

돌고래쇼 조련사에서 돌고래 해방 전사로 인생을 바꾼, 영화 <더 코브>의 주인공 릭 오베리는 ‘돌고래 전시가 교육적이라면 수족관이 51개나 있는 일본은 왜 고래로 인한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일본은 고래 살육으로 국제적인 비난의 중심에 있는 나라지요.

‘제돌이는 곧바로 바다에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야생적응훈련 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설사 훈련 후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관장이 나더라도 돌고래는 동물원이 아닌 바다에 설치한 보호시설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제돌이와 친구들이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봅시다.

“수족관의 돌고래를 관찰하며 돌고래의 생태를
배운다는 것은 디즈니랜드의 미키마우스를
보고 쥐의 생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 릭 오배리

5월9일에 열린 '전시 돌고래의 안전 방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의 발언.





야생에서 적응이 힘들니 방생하면 안 된다?

수족관의 돌고래는 인간이 만들어낸 '돌연변이'

글 **이형주** 탐정 동물자유연대 캠페인팀

돌고래는 야생동물 중에서도 인공적 사육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동물 중 하나이다. 돌고래의 지능은 오랑우탄, 침팬지 등의 대영장류나 인간의 영아와 비슷하고, 돌고래에게는 자의식이 있으며 관념적 사고가 가능하다. 또한 돌고래는 가족, 친구와 강하고 복잡한 유대관계를 맺는 사회적 동물로, 평생을 가족으로 이루어진 한 무리 안에서 생활하며 보낸다. 해양 서식지에서의 돌고래들은 살아 있는 물고기를 영민하게 사냥하거나 동족과 교류하면서 집단으로 놀이를 하는 등의 습성을 보인다.

이렇게 지능이 높고 민감한 동물인 돌고래의 포획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 고래 사냥꾼들은 비행기, 배, 작살, 폭발물 등 소음을 낼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 돌고래 무리를 그물망 안으로 몰아넣는다. 인간이 참아내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은, 인간보다 몇천 배 예민한 청각을 가진 돌고래에게 공포심을 주어 쉽게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연안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들은 전 세계의 돌고래 수족관과 돌고래쇼장에 팔려갈 돌고래들을 고른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돌고래들이 가족과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광경이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실제로 캐나다 연안에서 잡혀 사해물의 수족관에 팔려간 돌고래 '나무'의 경우, 천장에 갇혀 운송되는 내내 가족 돌고래들이 잡힌 고래가 실린 배를 따라오기도 했다. 일본 다이재(太地)에서는 쇼에 서지 못한 돌고래들이 살육당해 고래 고기로 팔려나간다.

쇼 돌고래 잔혹사

넓은 바다에서 하루에 160km 이상을 수영하던 돌고래들은 하루아침에 몸을 겨우 돌릴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수족관에 갇힌다. 몇 미터만 수영해도 밖에 부딪히고 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절반이 스트레스로 죽고 만다. 수족관 물에는 돌고래의 배설물을 소독하기 위해 염소 등의

울산고래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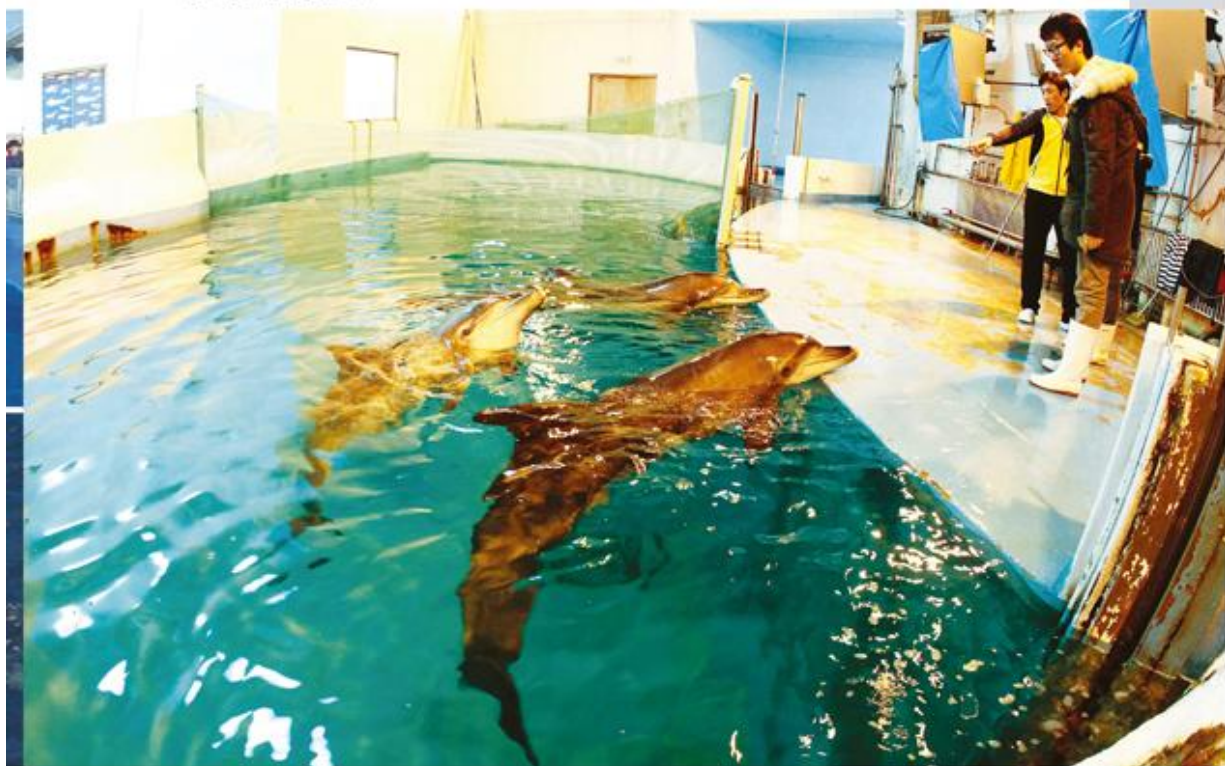




화학물질을 섞는데, 이 때문에 돌고래는 피부가 벗겨지고 심지어는 시력을 잃기도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돌고래들은 작은 원 모양으로 반복해서 도는 상동증과 무가력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이상행동을 흔히 보인다. 실제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을 방문했을 때 움작임 없이 물 위에 떠 있던 돌고래가 먹이를 주는 곳인 시멘트 위로 반복해서 몸을 던지는 행동을 목격하기도 했다. 많은 사육사들이 스트레스성 위장병에 시달리는 돌고래들의 먹이(생선) 속에 위장약을 넣어 먹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돌고래는 또한

세계에서 청각이 가장 발달한 동물 중 하나로, 사물을 음파로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인 음파탐지기 '소나(sonar)'를 이용해 바다 세계를 탐지한다. 이들은 임신부가 물속에 들어가면 배 속 태아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돌고래들에게 돌고래쇼장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청중의 함성은 건디기 힘든 고문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전 세계에서 포획·사육되는 돌고래 중 절반 이상이 포획 도중이나 감금 상태에서 내장기관 질병, 염소 중독, 또는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죽는다. 지난 30년간 인공사육에서 죽은 해양 포유동물의 수는 3,850마리에 이른다.

사진제공 한겨레신문 김재훈 기자



아생의 돌고래의 몸에 무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재주를 가르치기 위해 조련사들은 막이를 이용한다. 스스로 막이를 사냥해 먹던 돌고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막이를 주는 조련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조련사와 돌고래 간의 특별한 '교감'이라고 착각한다. 지능이 높은 돌고래들은 꼬리를 치고 청중이 원하는 몸짓을 하면 생선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빨리 배운다. 공연하기를 거부하는 돌고래에게 이용하는 또 하나의 수법은 '따돌림'이다. 전직 돌고래 조련사 더그 카트리지는 이를 두고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다른 돌고래들과 격리시키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회상한다.

고단한 삶을 떠나 바다로, 바다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돌고래들을 그들의 서식자인 바다에 방생하는 것이 과연 일각의 우려처럼 어렵고 무책임하며 진인한 일일까? 미국 해양수산부의 집계에 따르면 1964년부터 70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다양한 이유로 자연에 방생되었다. 1993년, 브라질에서는 10년 이상 사육시설에 있던 돌고래 '플리퍼'가 방생되어 1995년까지 서식지에서 관찰되었고, 1992년, 바하마에서는 무려 17년 동안 갇혀 있던 돌고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990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실험용으로 2년간 사육된 돌고래 '에코와 미사'가 원래 살던 서식지에 성공적으로 방생되었다. 1992년, 호주에 있는 '아틀란티스 마린 파크'라는 수족관이 경제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수족관 안에서 탄생한 개체 2마리를 포함한 11마리의 돌고래를 방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 중 9마리는 무려 11년 동안 감금당해 있었다. 이 동물들은 바다와 마린 파크의 중간에 설치된 훈련장에서 1년간 야생적응훈련을 받은 뒤 방생되었다. 방생 후에도 돌고래들의 상태에 대한 관찰이 계속되었으며, 이 중 체중이 줄어들고 야생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된 3마리는 바다 안에 설치된 큰 적응장에 돌아와 살고 있다.

감금을 위해 의도적으로 야생성을 잃게 만드는 '순치과쟁'을 겪은 돌고래들이 바다로 돌아가 이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의 막이습득 능력과 약화된 체력을 회복하는 적응훈련을 필수적으로 시켜야 한다. 보통 1년에서 2년간, 돌고래들은 죽은 물고기 대신 살아 있는 물고기를 먹



지난 3월 7일,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핏핑크를 필두로 서울시장 앞에서 '불법 포획된 알몸 위가 종 돌고래의 소중단 및 방생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14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불법포획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



는 훈련과 함께 사람에게 의지하는 습성을 버리는 훈련을 받는다. 방사 후에 돌고래들은 일정한 적응기를 갖는데 이 기간 동안 돌고래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라디오 교신기 등을 사용해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종 감소 등 돌고래가 야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징후가 보인다면, 연안에 네트로 설치한 적응장갑이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 바다의 파도와 살아 있는 물고기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은, 수년을 갇혀 자낸 돌고래들에게 정신적인 치료와도 같다.

1960년대 미국에서 방영되어 전 세계를 돌고래 열풍에 몰아넣은 TV시리즈 <플리퍼>의 유명 한 돌고래 조련사이자 훗날 돌고래 해방 운동가가 된 릭 오베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족관의 돌고래를 관찰하며 돌고래의 생태를 배운다는 것은 디즈니랜드의 마키마우스를 보고 쥐의 생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수족관의 돌고래는 진짜 돌고래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돌연변이일 뿐이다. 어떤 돌고래도 야생 상태에서 공을 가지고 놀거나 사람을 등에 태우고 수영하지 않는다. 야생에 돌아가면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추측 때문에 돌고래를 계속 감금해두는 일은, 형을 마친 수감자를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함부로 예측하며 계속 감옥에 가두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돌고래를 비롯한 모든 야생동물은 그들의 자연 서식지에서 본능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고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만이 비로소 교육적 가치가 생성된다. 또한 그때서야, 인간에게도 그들의 신비로운 생태를 들여다볼 권리가 생긴다.

바다로 돌아가야 할 더 많은 제돌이들을 위해

인터뷰 정리 심샛별 동물자유연대 전략기획국 국장

1960년대, 릭 오베리는 마이애미 해양 수족관의 조련사였다. 그는 당시 인기 TV시리즈였던 <플리퍼(Flipper)>에 출연한 돌고래 다섯 마리를 포함해, 수많은 돌고래들을 직접 포획하고 조련하며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플리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돌고래 '캐시'가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자 그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일을 계기로 야생 상태의 돌고래를 잡아다가 우스꽝스러운 재주를 부리도록 조련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 오베리는 돌고래 보호 활동가로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제돌이와 펠리칸랜드에 갇혀 있는 다섯 마리의 돌고래는 해양환경의 상징입니다. 이런 제돌이 방사 결정은 전 세계에 '한국은 자연을 존중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지지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초청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세계적인 돌고래 활동가 릭 오베리의 말이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그를 직접 만나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물어보았다.



전직 해양 수족관의 조련사였던 릭 오베리는 현재 돌고래 보호 활동가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직 돌고래의 안전 방생을 위한 캠페인 이슈를 폭력화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의 초청으로 특별히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 다이지 연안의 끔찍한 돌고래 사냥을 파헤친 영화 <더 코브>의 개봉 이후 더욱 박박지 싱가포르, 유럽, 일본 등 돌고래쇼나 포획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방방곡곡의 수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이 점이 힘들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을 하러 가는 곳 대부분이 대입과 다름이 있는 부조화의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쇼장에 간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돌고래쇼장은 단순히 오락을 즐기는 곳이겠지만 저에게 그곳은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현장입니다. 쇼장에 가면 커다랗게 '오션 파라다이스, 돌고래의 천국'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곳의 상황은 천국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쇼를 그만두도록 방해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차리리 집에 머무르고 싶기도 합니다.

당신은 돌고래 활동가로 40년 이상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나 원동력이 있다면?

이미도 내가 바보여서겠죠. (웃음)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진짍니다. <플리퍼>에 출연했던 캐시의 죽음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 그 일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아무런 결과나 진보가 없었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겠지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개선되는 상황들이, 이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응답자의 과반수가 돌고래쇼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교육적 용도를 위해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둬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은 먼저 일본의 사례를 봐야 합니다. 일본에는 51개의 돌고래 수족관이 있고, 국민 대부분이 돌고래쇼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장 잔인한 돌고래 포획과 살육이 일어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돌고래쇼를 보면 인간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교육적 효과가 생겨 돌고래와 자연을 보호하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한참 다른 현실이지요. 한국에 와서도 돌고래쇼를 봤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라면 돌고래에게 결코 시키지 않을 행동을 지시하고 연출하는 모욕적인 내용의 쇼였습니다. 이것은 돌고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쇼를 보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비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쇼를 보면 동물들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죠? 이렇게 먹이로 동물을 훈련시키고, 인간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쇼를 하지만, 실상은 동물을 오래 괴롭혀 조련한 후 오락거리로 즐기는 것뿐이지요. 이 자체가 비극 아니겠습니까? 제물이 재활훈련을 받고, 바다로 돌아가 가족과 합류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한다면 그게 진짜 '교육적인' 돌고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영화 <더 코브> 속 돌고래 학습 장면. 일본 다지이 연안에서 매년 2만 3천 마리 정도의 야생 돌고래가 불법포획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도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100%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안전한 수족관에서의 삶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방이 무척 좋습니다. 아마도 룸서비스를 받으면 한동안은 방 안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방 안에 갇혀 자네게 된다면 거기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지 생존을 하고 있을 뿐 자유롭게 삶을 구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돌고래라고 해서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넓다넓은 바다에서 살던 돌고래를 잡아다가 콘크리트 수족관에 넣어두는 것은 그 자체로 학대입니다. 포획된 돌고래가 원래 서식지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재활이 끝난 후 훈련장 문을 열어주는 것은, 이곳에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돌고래에

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바로 바다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돌고래들을 제주도의 방사 훈련장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자연의 리듬, 그러니까 조수 간만, 바람, 햇볕, 신선한 공기를 다시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돌고래들이 야생의 세계로 돌아가 자기 그룹에 합류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만일 어떠한 이유로 훈련장에 남겠다고 하면 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비하면 됩니다.

수족관에 살던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가면 겪게 될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

돌고래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인간이 돌고래 서식지인 바다에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이지요. 바닷물은 수은 같은 중금속 물질로 가득하고, 빠른 속도로 자나다는 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제물이의 경우처럼 돌고래 방생을 진행할 때, 제물이의 보호에만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물이를 비롯한 더 많은 돌고래들이 살아갈 환경, 즉 제주 앞바다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물이를 통해서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돌고래에 대해 잘 몰랐을 때, 돌고래쇼는 시작되었다. 돌고래가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포획 과정에서 목격한 동료와 가족의 살육 장면을 평생 기억한 채 좁은 수족관에서 미쳐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쇼를 하는 돌고래가 행복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돌고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사육사에게 죽은 물고기를 받아먹고 그에 대한 답례로 입맞춤하는 돌고래의 행동이 사육사와 나누는 애정 어린 교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돌고래쇼를 비롯한 여러 동물쇼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향해야 할지, 먹 오배리의 고투의 경험이 가야 할 방향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을 방문한 익 오배리



바좁은 송아지 상자에서 철분이 결핍된 대용유를 먹여 사육한 후 호텔과 가내식당에 비싼 값에 파는 화이트 빌(white veal)의 모습. 사진출처 CAFO

송아지까지 기필코, 꼭 먹어야 하나?

글 김진영 선임활동가 · 동물자유연대 농정동물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16일, 농림수산물부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송아지 고기 산업화를 반대하는 긴급 집회'를 진행했다. 사료 가격 급등으로 소가 굶어 죽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농림수산물부(이하 농림부)가 송아지 고기 산업화를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어린 송아지를 먹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

희생의 목전에 놓인 송아지는 젖소가 낳은 수컷 송아지이다. 우리가 먹는 우유, 버터, 치즈, 마요네즈와 같은 유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젖소는 매년 인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한다. 출산의 결과로 우유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젖소로 기르면 되지만, 수송아지는 젖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서구 공장식 축산업자들은, 키워야 할 많은 이득을 보지 못하는 수컷 송아지들을 어릴 때 도축해 제품화한다.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만에 도축장에 보내지는 '밥 빌(Bob veal)'이나 바좁은 송아지 상자(veal crate)에서 철분이 결핍된 대용유를 먹여 사육한 후 호텔과 가내식용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화이트 빌(white veal)'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 송아지 고기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반성적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에 송아지 상자를 금지했고, 유럽연합에서는 2007년부터 금지했다. 미국에서도 2008년에 플로리다 주를 시작으로 2011년에 메인 주에서 송아지 고기가 금지됐으며, 2012년부터는 애리조나 주, 콜로라도 주, 미시간 주, 2015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지된다.



인도적인 송아지 고기란 없다

꼭 송아지 상자에서 사육되는 화이트 벨이 아니더라도 어린 생명체가 '먹히기 위한 고기로 성장되는 과정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육즙과 마블링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는 푸른 방목지에서 무리와 함께 목초를 뜯어 먹으며 자라나서는 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부 장관이 송아지 고기 시식회까지 진행했지만 대부분 '맛없고 질기다'라는 평가를 얻은 것도 송아지 고기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송아지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생후 1주부터는 다른 송아지들과 빈번하고 자연적인 상호접촉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양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송아지는 태어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어미와 떨어진다. 송아지 고기로 생산되는 송아지는 어미젖 한 번 빨아보지 못한 채 동료와의 사회적 접촉을 박탈당하고, 개체별 체질에 따라 운동량을 제한당한 채 단기간에 살찌워진 다음 도축되는 것이다. '인도적으로 송아지 고기를 생산하면 안 되

느냐'라는 물음에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부드럽고 연한 고기를 더 많이 원하기 때문이다. 대안은 단 하나이다. 건강을 위해 육식의 양을 줄이고, 육식을 위해 희생되는 대상을 줄여 나갈수록 동물들의 고통도 줄어든다.

다 함께 실천해요!!

1. 유제품 소비량을 조금 줄여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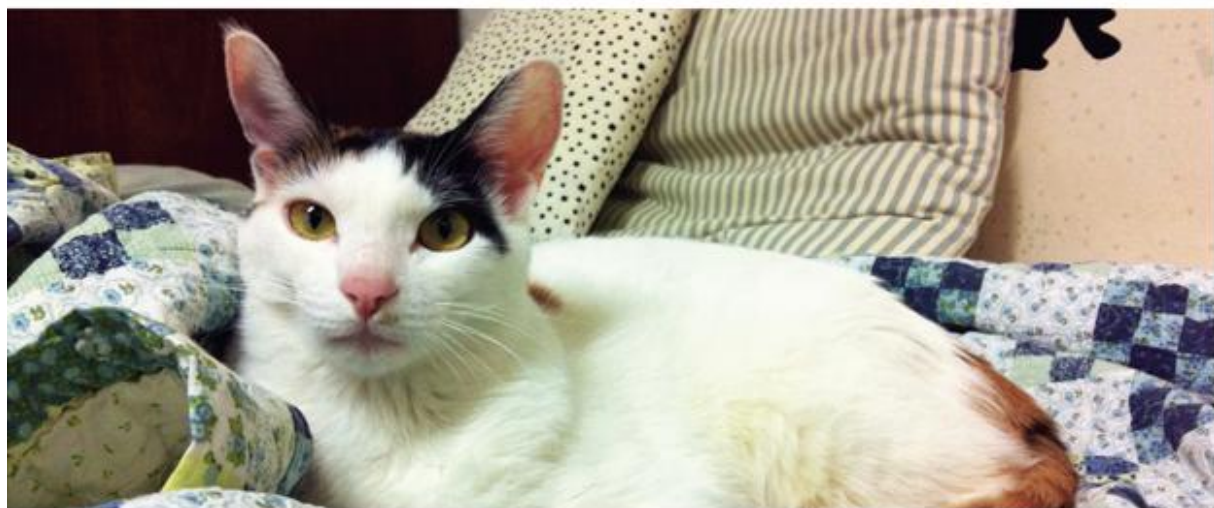
워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한 법!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제품 소비율이 세계 최고인 미국에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영차뼈 골절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고단백질 식품은 오히려 칼슘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우유, 버터, 치즈, 마요네즈와 같은 유제품 소비량을 줄이면, 젖소들이 무리한 임신과 출산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수컷 송아지들의 환영받지 못하는 탄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외국산 고기보다는 국내산 육우를 소비해요!

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의 축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젖소가 낳은 수컷 송아지를 갈라서 국내산 육우로 판매해봤자 터무니없이 값싼 외국산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경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송아지 고기를 산업화하려는 것입니다. 송아지 고기 산업화로 문제가 귀결되지 않도록 국내산 육우를 소비하는 건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FTA로 인한 자국 축산업의 위기를, 자국에서 생산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우를 소비함으로써 극복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유기된 후 길에서 독극물을 먹고 허반신이 마비되었던 집스. 현재 구조 후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 좋은 분께 입양되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더 나은 동물보호법을 위해

글 정전아 활동가(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팀)



뒷다리가 뻣은 채로 방치되어 있던 릴리엄. 릴리엄은 구조 후 치료받고 탄탄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2012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이전에는 벌금형에만 그쳤던 동물학대 범죄가 징역형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 경북의 한 도시에서 뒷다리가 과사된 채 방치되어 있던 강아지를 구조한 제보자가 강아지 주인을 동물학대로 고발하고 싶다는 전화를 해왔다. 주인은 강아지에게 밥과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아픈 다리를 그대로 방치해, 구조가 이루어졌을 땐 이미 과사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뒷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2. 경기도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캣맘 활동을 하고 있는 제보자가 집 주변의 식당 주인이 악을 놓아 길고양이를 죽이고, 개 또한 잡아먹은 듯하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제보자는 식당 주인이 개와 고양이를 죽였다는 증거를 찾아보려 애썼으나 쉽지 않아 동물자유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위의 글은 동물자유연대 사무실로 걸려온 동물학대 제보전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례가 모두 동물학대 사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강아지 주인과 식당 주인은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으로는 이 두 사례 모두 처벌이 힘든 상황입니다.

동물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아픈 동물을 치료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만을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다 할지라도,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물학대는 집 안이나 사람이 없는 곳 등에서 남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분명한 동물학대로 인정되어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격리시킨 상황에서도, 소유자가 돈을 내고 동물을 되찾아오고자 하면 학대를 가한 소유자에게 다시 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동물학대 측면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처벌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패로 작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처벌이 불가능한 동물학대 사건 제보전화를 받고 현재의 동물보호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전화를 끊을 때면 동물구조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곧 더욱 진보된 동물보호법이 생기리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의 한계만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실천해나간다면 동물의 삶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요? 학대로 고통받는 동물이 없는, 더 나아가 모든 동물이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태문에서 학대받아 죽은 길고양이



견주의 장신 이상으로 방치된 개

근처에 동물학대에 대해 경고하는 인쇄물을 부착해 경각심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동물학대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www.animals.or.kr) 반려동물 게시판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유인물을 인쇄한 뒤 주변에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래를 구하려는 특별한 의지

글 김은선 동물자유연대 회원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벌이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에 관련된 공방을 보며 '고래가 뭐 그리 특별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의문은 영화 <빅 마라클> 속에도 나온다. 고래를 구하려는 그린피스 활동가에게 주인공 기자는 "왜 고래를 구하려고 하냐? 개들은 다른 동물들과 뭐가 다르지?"라고 묻는다. 동물과 관련된 이슈는 항상 이런 종류의 모순을 지각하는 의문에 부딪히곤 한다. 흔하게는 개고기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에게 '왜 닭이나 돼지, 소는 먹으면서 개는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가. 예측하건대 동물 복지를 꾀하는 사람들에게 '구조나 방사의 의자나 기준점은 어디인가. 동물 보호에도 시열을 두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돌고래를 구하려는 이유는, 그 동물이 다른 동물과 다르거나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그 동물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돌고래가 좀 더 특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경우, 영화 속 고래가 처한 위험보다 도심의 길고양이가 처한 위험이 더 절실하고 더 크게 다가오니 까, 내겐 고양이 문제가 더 특별해진다.

자연은 보통 인간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는 온화한 어머니로 묘사되지만 그건 일면일 뿐이다. 자연은 무자비하고 광폭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그 노력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애초에 자연을 정복하려 했던 인간의 의지를 무조건 비난하기는 힘들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사랑한다. 나는 이 모순을 극복해야 할 난제가 아닌, 생명의 조건, 삶의 조건으로 받아 들인다. 나는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며, 모든 동물을 구조해야만 한다고 강변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고래를 향할 수도, 고양이를 향할 수도, 개나 소를 향할 수도 있다.

사실 바깥은 풀장에 갇혀 있는 고래를 구하든, 길 위에 유기된 개나 고양이를 구하든,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든, 인간의 이기심으로 축조된 공장식 축산 형태를 반대하든 이 모든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실천과 힘을 보태려는 이유는, 결국 이 자구가 인간만이 독점해야 할 터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 복지의 문제는 곧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제 관념이 아닌 실천으로 깨닫고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될 때이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고래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특별한 의지는 곧, 지구를 살리려는 의지, 인간의 미래를 살리려는 의지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의지라는 걸 이 지면을 빌려 얘기하고 싶다.



MOVIE

빅 미라클 (감독: 토티 피스)



최근에 개봉한 <빅 미라클>에는 회색고래가 등장한다. <빅 미라클>은 1988년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고래 구출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해는, 서울을 핏빛이 얼었던 해고 동사촌인 시대, 에델로르기의 시대가 고별을 고하기 바로 직전의 시기였다. 알래스카의 방파제 길인 회색고래 세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갈등까지 잠시 잊고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고래들을 구출한다는 내용이 영화의 주를 이루는 맥락이다. <빅 미라클>에 등장하는 회색고래는 진짜 회색고래가 아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회색고래를 영화에 출연시킬 수 없었던 제작진은 진짜와 똑같이 생긴 모형 회색고래를 제작했던 것이다. 이 영화에서 그린피스의 열혈 자원봉사자 '레이철' 역을 맡고서 극중 새끼고래와 물속에서 교감하는 단 한 컷의 장면을 위해 다이버 작중을 취직한 드루 베리모어는 "회색고래 모형을 처음 봤을 때 E.T.를 봤을 때의 느낌 그대로였다"고 전한다. 그렇다. 고래는 우리 인간에게 E.T와 같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래에 대해서 E.T.만큼이나 모르니까, 사체의 이념과 사상과 갈등을 뛰어넘고 구한 것이 회색고래지만 결국 그 고래가 은유하고 있는 건 병들어 있고 있는 지구이다.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



돌고래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고래 박물관마저 보유한 일본의 작은 어촌 다이지(太地). 언뜻 평화로운 보이는 이 마을의 사람들은 돌고래소를 위한 돌고래의 대부분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쇼에 적합하지 않은 돌고래를 코브

(cove, 만)에 몰아넣고 무참하게 학살해 식용으로 팔고 있다. 돌고래 사냥철에 희생되는 돌고래의 수는 2만 3천 마리가량.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은 다이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돌고래 포획과 살상을 알리기 위해, 돌고래 조련사에서 돌고래 보호 운동가로 전향한 리처드 오베리와 환경운동가들이 만든 다큐멘터리이다. 돌고래의 피로 물들어가는 새빨간 바닷물만큼 일본의 고래 산업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실태가 어떤 공포영화보다 잔혹한 영상으로 고발되고 있다.

BOOK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버지니아 맥케너 글, 이연 앤드류 그림/햇살과나무꾼)



수족관에 갇혀 있던 돌고래 로키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야생의 바다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로키의 시선으로 담은 동화. 영국 랭커셔주 모어캡트 머빈랜드에서 진행된 실험 내용을 책의 뒷부분에 일지와 사진으로 곁들여 실고 있다. 저자 버지니아 맥케너는 영화 <야생의 열지>에 출연한 뒤 '본프리 재단'을 만들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온 야생우이다. 1970년대 영국에는 30개가 넘는 돌고래소가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제물이의 미래 모습을 아이와 이야기하며 희망을 그려볼 수 있는 책.

고래의 노래 (남종영/공리)



고래의 생태, 포경의 역사 그리고 최근의 고래를 둘러싼 환경 이슈 등 고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개론서. <고래의 노래>는 신문기자로 재직하며 고래를 만나기 위해 거의 매년 북극으로 떠나는 저자 남종영의 몸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우리가 고래를 만날 수 있는 건 고래가 자신의 세상을 박치고 우리에게 잠시 와주었을 때다'라는 그의 말처럼, 2011년 이 책이 '세상을 박치고' 출간된 것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고래의 삶과 죽음 (이브 코아/시공사)

핸드북 사이즈로 유명한 '사공 디스커버리' 중 무려(!) 세 번째로 나온 책. 문화권



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래의 진실, 고래사냥의 시작, 고래의 생태, 포경업과 포경선원의 생활을 다양한 도판과 함께 아우르고 있다. 구역성서

에 나오는 요나의 고래부터 인간의 모진 모험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 비밀을 벗어가는 고래의 신비까지 담은 연대기적 구성이 한편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하다.

MUSIC

돌고래 태고 (IC 신세대 엄마들의 스테코랩)



태아가 엄마 배속에서 듣는 소리는 돌고래의 소리와 유사하다고 한다. 고래의 초음파가 아이들의 두뇌를 자극해 두뇌를 발달시키고 안정을 준다는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태고 음반. 돌고래 소리와 '토마스 음악' 시리즈로 유명한 호주의 뮤지션 켄 데이비스의 음악을 한데 묶었다. 돌고래의 사랑과 기쁨, 유영하는 대양의 돌고래 등 편안한 분위기의 뉴에이지 음악에 돌고래 소리가 살짝 섞여 들어 있다. 굳이 태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태국적 생명의 씨앗이 태어난 곳에서 들리는 소리의 향연을 맛보고 싶다면 추천한다.

FESTIVAL

퍼시픽 림 웨일 페스티벌

(Pacific Rim whale Festival)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밴쿠버 아일랜드의 휴양도시 토피노에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개최되는 고래 축제. 멕시코 바하 반도를 출발한 쇠고래(grey whale) 2만에 마리가 알래스카 베링해협으로 이동하는 길목인 퍼시픽 림 국립공원에서 고래매의 대장정을 구경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하는 페스티벌은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공식 홈페이지 www.pacificrimwhalefestival.com에서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글 윤정임 실장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지난 2011년 6월, 땃줄이 달린 채 지붕 끝에 매달려 있던 가여운 길냥이 새끼 꼬물이가 천신만고 끝에 행당동에 보급자리를 틀었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여줘야 하고 손으로 항문을 문질러 배변을 유도해야 했던, 너무나도 작고 약했던 꼬물이는 밤잠을 줄이며 돌봐주었던 동물자유연대 직원들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고 별이 되었습니다. 어미와 헤어져 길에 한참 방치된 아기 냥이들은 면역력이 엄청나게 약해 구조가 되어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꼬물이가 떠나고 두 달이 흐른 어느 날, 행당동 '동물자유연대' 문 앞에는 바리진 젓막이 아기 냥이가 박스에 담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꼬물이를 보낸 충격으로 이 녀석을 살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행당동 사람들은 급히 꼬물이의 임시보호가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 녀석만큼은 안전하고 따뜻한 품을 찾아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바람은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가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 과연 정성을 기울여 아이를 돌봐 줄 임시보호가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현재의 입양자이신 이영진님께서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망명님이 두 분이나 있는 단란한 가정의 일원이 된, 하얀 천사 꼬맹이를 만나보실까요~?



꼬맹이 입양자 이영진 님 인터뷰

열대야에 잠 못 이루던 지난해 8월의 어느 날 새벽,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꼬맹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하얗고도 작은 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임시보호를 신청했지요. 집으로 데려와 3~4 시간마다 분유를 티 먹이고 변을 받아내면서 이 녀석과 끈끈한 정을 쌓았고, '이 아인 내 아이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만, 이미 집에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고, 겨울이면 태아날 조카도 함께 살 예정이어서 쉽게 입양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너그러운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을 받아 저는 하얀 천사 꼬맹이를 보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복병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 개님들이 사람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게 싫었는지 처음에 꼬맹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꼬맹이를 피하거나 찾아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망망한 꼬맹이는 그에 개의치 않고 계속 다가가서 개들과 친해지기를 시도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님들도 결국 곁을 내어주더군요. 요즘 꼬맹이는 낮잠 잘 때에는 아버지 침대로 쏴르르~, 해가 떨어지면 제 침대로 쏴르르~ 온답니다. 날아다니는 개냥이 꼬맹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처음엔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려 결정에 후회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영국 동물 보호소의 자원봉사자 운영 프로그램

글 이형주 팀장 동물자유연대 캠페인팀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가 방문한 영국의 보호소들은 각각의 자원봉사자들이 맞는 분야에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가지고 자원봉사에 나선 동물과 사람,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드물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호소들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호소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영국의 모든 동물 보호소의 공통점입니다. 보호소의 구조와 동선 파악, 동물을 산책시킬 때의 주의할 점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보호소를 방문하여 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영국 동물 보호소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 자원봉사에 입할 수 있다.

똑같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동물을 익숙하게 다루는 능력은, 동물을 기른 경험이나 신체적 조건, 성격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 보호 동물의 종류도 산책에 익숙한 작은 가정견부터 투견에 쓰이던 큰 핏줄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많은 보호소들은 봉사자의 능력과 개들의 성향을 색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 구분으로 인해 초보자가 다루기 힘든 동물들을 산책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 봉사자들은 어떤 개를 몇 사에 얼마나 오래 산책시켰는지를 칠판에 기록함으로써 모든 동물이 골고루 그날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배터시(Battersea) 보호소에서는 산책 이외에도 개들이 봉사자와 실내에서 놀거나 사무실 주방 등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까지 기록해서 동물들이 우리에서 혼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보호소의 경우엔 도형을 이용해서 쉽게 차이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이제 국내 보호소도 단순히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들에게 사료와 잠자리만 공급하는 수용소 형태가 아니라, 자라는 동안에 최대한 복지를 보장받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 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자원봉사, 후원 등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 그리고 동물 보호시설의 입체적인 노력이 삼박자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선진형 보호소의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보호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1 봉사자의 능력과 개들의 성향을 색깔과 도형으로 구분해 자원봉사의 효율을 높였다.
- 2 실내에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보호소의 동물들은 반드시 하루 두 번 이상 실외 산책을 시킨다.

입양해주세요

노견들에게도 애정 어린 가족이 필요합니다

글 윤정임 실장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자유연대에는 입양이 되지 않는 10살 이상의 노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시추가 많답니다. 시추는 친화성이 좋고 유순하고 귀여워 개를 처음 키우는 가정에서 많이 선호하곤 하죠. 선호종이라 분양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곤 하지만, 다른 소형견종에 비해 몸집이 큰 편인 데다 선천적으로 눈도 약하고 피부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종이라 미성숙한 양육자들에게 가장 많이 버림받는 비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행당동에는 시추 노견 5연방이 있는데 바로 대국이, 짱아, 미달이, 복순이, 켄이입니다. 이 5연방은 기본적인 피부염과 안구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노견들이 온몸을 돌돌 말고 발 난로 앞에 붙어 앉아 있을 때는 퇴근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무덥고 습한 여름에는 '어디 짓무른 곳은 없나' 몸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노견... 그것도 질환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늙은 개들은 거의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10살 이상의 노견은 사람들의 관심 밖입니다. 보통은 입양한 동물이 건강하고 어려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견들에게 따뜻한 자리를 제공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며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눈감는 곳이 보호소가 아니기를...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노견들을 위한 호스피스에 지원해주세요.

활동소식

2012년 2월 ~ 2012년 3월



열악한 환경 속에 살던 시흥시 공터 개들

시흥시 정왕동 근처 공터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유기견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치료와 급급한 2마리의 개들을 우선적으로 구조, 치료 후 동물자유연대로 입소시켰습니다. 2차 방문에서는 1마리가 임시보호 되었고, 남아 있던 4마리 개들은 근처 동물병원에서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을 지원받은 후, 안정에 있는 사설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돌봐주는 이 없는 황량한 공터에서 불안한 삶을 아꼈던 7마리의 가여운 생명들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동물자유연대 정기총회 및 이효리 달력 판매 기금 전달식

지난 2월 18일,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동물자유연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진 임원, 대의원, 정회원 등 많은 분들이 와주신 가운데, 이효리 씨도 참석해 1만 부 정도 판매된 이효리 동물보호 달력의 판매 기금 전달식 및 감사패 수여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달력 제작을 위해 애써 주신 포토그래퍼 홍장현, CJ E&M, CJ오쇼핑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2011년 재정 및 활동 보고, 2012년 예산안과 활동 계획을 심의하고 동물보호원 건립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시 돌고래의 안전방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대공원의 제돌이가 방생 결정이 나고, 불법 포획된 제주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5마리도 몰수 판정이 났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이 바다의 품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아직 국내에 부족한 돌고래 방생 전문가들을 해외에서 초청하여 '전시 돌고래의 안전방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aT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영화 <더 코브>로 잘 알려진 릭 오베리 씨와 돌고래소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돌이가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무사히 방생되고 돌고래소가 중단될 수 있도록 꾸준히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산란계 및 농장동물 실태 언론 인터뷰 진행

지난 1월 27일, 한겨레신문에 '강제 달걀이·부리 절단, A4 감옥 속 암탉의 비명'이라는 제목으로 공장식 축산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산란계들의 현실이 가시화되면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장동물의 실태를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1월 31일 오전 8시에 방송된 원음방송 <민중기의 세상읽기>와 2월 4일 오후 7시에 방송된 라디오 <CBS 시사자키>에서 생산량 극대화와 생산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닭과 돼지의 끔찍한 사육 실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에게 전해지는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및 대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포근한 동물보육원을 희망해' 동물보육원 모금 캠페인

가수 이효리 씨가 DAUM의 '희망해 스타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육원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포근한 동물보육원을 희망해' 캠페인을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학대받는 동물들의 안식처가 될 동물보육원. 그곳에 작은 주춧돌 하나라도 우리 손으로 마련해주고 싶어요'라는 내용으로 제안된 이 캠페인에는 2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34,980,114원으로 '희망해 스타 모금 캠페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와 동참이 뒷받침이 되어 이뤄진 복된 결과에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불에 그슬려 낚싯줄에 매달려진 고양이 사건 수사 진행

지난 2월 15일, 고양이의 온몸을 낚싯줄로 감아 가꾸로 목매단 후 불로 그을려 학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건이 제보되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유사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대문경찰서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서대문경찰서 강력팀이 이 사건을 맡아 집중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식적으로 부검을 의뢰한 동물방역부 질병 진단과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급히 수사가 종결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DAUM 희망해' 모금 심의 및 집행기관으로 선정

동물자유연대가 'DAUM 희망해'의 희망모금들 중에서 '동물관련 모금 심사 진행 및 집행'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의 사연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히 진행하는 이 심사는, 'DAUM 희망해' 모금 심사기준을 기초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동물보호 고유의 검토 기준을 두어 심사합니다. 2월 20일 오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서 사회공헌팀과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 분야의 건전한 기부 문화 창출과 기부금 조성을 위하여 '다음 희망해'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대한사료의 후원으로 사설 보호소 5곳에 사료 6톤 지원

(주)대한사료에서 2월 21일, 자사의 사료 6톤 분량인 400포를 동물자유연대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대한사료 안천공장을 방문하여 화물트럭 5대에 소중히 사료를 나누어 실은 후, 100마리 유기견을 돌보는 김성혜 아주마의 집을 비롯해, 애신동산, 행복한 보금자리, 이산천사원, 구미사랑보호소 0형게 총 5개의 사설보호소로 전달했습니다. 대한사료에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지원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료를 지원해준 대한사료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대한사료와 동물자유연대의 행복한 나눔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뭐냐? 넌

옛날에 예신 송도가 어느 날 뜰에서
물을 먹고 있는 사슴을 보고,
사람을 사지 때려서 내뿜었다.
아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자비심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정원의 물을 아깝게 여기어 축생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예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이 사슴을 때려서 내뿜지
않는다면, 사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연에게도 안심하고 가까이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렸습니다.'
사슴을 때린 것은 표면적으로
자비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소리로는 자비가 넘쳐흐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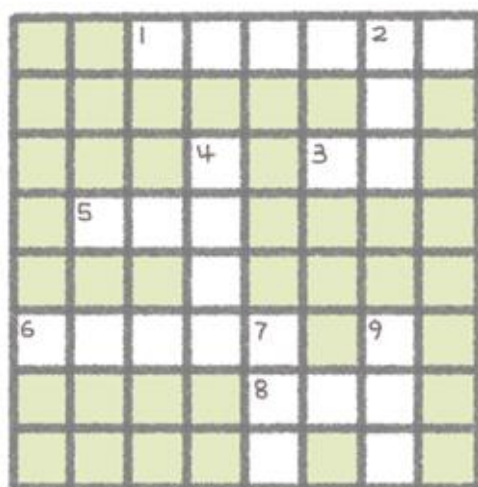


코운 에프의 <장비한장수물> 中

나의 집 살내에 추가하는, 그러니까 현재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똥똥하고 늙은 고양이(마리를 빼고 나의 정원을 왕래하는 고양이가 8~9 마리 정도 된다(나는 산과 논밭이 집보다 많은 한적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창을 사이에 두고 있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거칠 수밖에 없는 야생 속에서 사는 고양이들에게 내가 해주는 것은 때때로 막아와 물을 쟁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새끼집을 자어 나무 위에 올려놓듯 나무로 집을 자어(그러니까 새끼집보다는 큰 고양이[고]집이 되겠다) 정원의 귀퉁이 두어 군데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에게 이국고 닥칠 추운 날들을 때려하는 마음에서 집을 만들어준 것이다. 또한 가끔 정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간혹 나누는 눈 맞춤 몇 번이 그들과의 교류의 전부이다. 그들은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피한다. 고양이가 사람을 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어쩌다가 우리 인간은 야생동물의 적이 되었나). 하지만 나 역시 더 이상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나의 정원을 누릴 수 있게 내버려둔다. 내 맘에는 그들에게 약간의 편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곳은 나의 정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곳은 그들이 오랜 세월 대를 이어온 삶의 터전(영역)일지도 모른다. 고양이라는 동물을 좋아하는 내가 집 안의 고양이들과는 달리 그들과의 관계맺음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것,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은 이리저리한 경험 끝에 나온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고, 많은 것을 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꽤나 여러 해가 필요했다. 그들은 분명 고양이(사람과 꽤나 친근하여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물)이긴 하나 나와 함께 사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야 하는 애완동물(혹은 반려동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들에게 밥과 물과 공간을 적당히 쟁겨주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조금만 더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취약한 생존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의견이고 그들에 대한 태도이다. 위의 코운 에프의 글처럼 당신이 자비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생명에게 귀하게 전달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우리가 그들(야생동물)과 함께 잘 살기를 희망한다.

2012년 6월 노석미

십자말 퀴즈 간단하고 재미있는 동물 상식



'함께 나누는 삶' 독자 여러분을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가로세로 낱말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다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응모자 이름 :

연락처 :

주소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

가로열쇠

- ①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동물인 이 고래는 현재 약 100여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얼마 전, 이 고래 000 000가 불법 포획되어 동물소장 등으로 거래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 ③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태어난 지 열흘 안에 송곳니와 00을 자릅니다. 그런데 돼지도 강아지처럼 이것을 흔들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걸 아세요?
- ⑤ 동물자유연대가 다음 이고래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던 사례였어요. 공터의 알약한 환경 속에 방치된 개를 가운데 총 7마리를 구조했는데, 구조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 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많은 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동물학대의 한 유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고 무작정 동물들을 데려와 키우는 것은 동물을 위한 일 이 아닙니다. 소유이자 짐착, 더 나아가 학대일 수 있습니다.
- ⑧ 육자에 사는 동물 중 몸집이 가장 크며 긴 코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먹이를 먹는 동물이에요. 죽은 동료가 가족의 뼈를 기억하기도 하고, 무리 안에서 사회생활이나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로열쇠

- ② 고등어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 고스톱을 칠 때, 새가 그려진 매조(2월 휘파람새), 흑싸리(4월 종달새), 공산(8월 철새)의 꺾은 선 상태를 말한다.
- ④ 복잡복잡 많은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서 자내는 보호소, 사람의 정에 굶주린 보호소 아이들에게 0000로 잠시 의 따뜻함이라도 선물해주세요! 입양을 전제로 보호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이것을 진행하곤 합니다.
- ⑦ 루이 시호요스 감독이 제작한 영화 제목으로, 일본 다이지의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돌고래 포획의 잔인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 ⑨ 1960년대 미국에서 방영되어 전 세계를 돌고래 열풍에 몰아넣은 TV 드라마의 제목이자, 주인공 돌고래의 이름. 000의 조련사였던 릭 오베리는 이를 계기로 돌고래 해방 운동가가 되었어요.

정답 인증사진은 6월 28일까지 이메일 eunhee@animals.or.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해 박경대 동물 사진집 <야생의 숨결>, 동물자유연대와 도서출판 넥서스가 함께 만든 사진에세이 <나는 사랑입니다>를 드립니다. (당첨자는 7월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발표)



귀하고 예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동물자유연대 행당동 보육원에서는 가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등으로 인한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평소 애지중지하고 왓지떨 부산스러운 아이들도 한껏 품을 잡고 예쁜 표정을 지으며 포즈를 잡아준답니다. 우리 행당동 아이들이 어떤 내숭을 떨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과 인간은 너른 지구 안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이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삭막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미더운 동반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생활을 위해, 또한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인간을 위해 이용되곤 합니다.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이용될 때 그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곤 합니다.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대부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때론 고통을 가하는 그 행위가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이제 '인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똑같은 생명과 고통과 감정을 지닌 동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게 동물자유연대의 생각입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한 동물을 돌보는 일은 이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를 뜨거운 가슴으로 깨닫고,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를 변화시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의 동참이 있어야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비참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동물들의 상황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주세요.

후원계좌 국민은행 806201-04-005468 / 농협 015-17-002592

정기후원방법

- ◆ 이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www.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소 _____ 전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 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우리 단체는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2일 주경환은 2가
 2월 3일 주경환은 2가
 2월 4일 주경환은 2가
 2월 5일 주경환은 2가
 2월 6일 주경환은 2가
 2월 7일 주경환은 2가
 2월 8일 주경환은 2가
 2월 9일 주경환은 2가
 2월 10일 주경환은 2가
 2월 11일 주경환은 2가
 2월 12일 주경환은 2가
 2월 13일 주경환은 2가
 2월 14일 주경환은 2가
 2월 15일 주경환은 2가
 2월 16일 주경환은 2가
 2월 17일 주경환은 2가
 2월 18일 주경환은 2가
 2월 19일 주경환은 2가
 2월 20일 주경환은 2가
 2월 21일 주경환은 2가
 2월 22일 주경환은 2가
 2월 23일 주경환은 2가
 2월 24일 주경환은 2가
 2월 25일 주경환은 2가
 2월 26일 주경환은 2가
 2월 27일 주경환은 2가
 2월 28일 주경환은 2가
 2월 29일 주경환은 2가
 2월 30일 주경환은 2가

[illegible]

4/12/04

수많은 개들이
평생 단 한번
그런 놀이를 꿈꿔보지도
못 하고 ^{살다} 죽는다

고양이도?

조는? 조세지는?

1992 9217

1992

동물복지 활동가 브루스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썼다.

안간힘을써
원가 자연권
같은 게 있
것 같아...

국가도 고령
보장해야 하지

당초
20여 국가의
대표가

18세기에는
민중들의가 시작되었다.
19세기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
20세기에는 아동노동이 금지되고,
아동 학대가 불법화되었으며,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고,
흑인의 권리가 확대되었다.
우리가 세상을 다한다면
21세기는 동물 권리의
세기가 될 것이다.

peto.org.
petarianism in a nutshell?

최선을 다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모범적인 예를
발견하고 있다.

복시각

454

훈자
무엇 먹냐!!

... 2000년 12월 20일

on page 42